

바다서 100% 생분해... CJ제일제당, 친환경 시장 공략 속도

국내 최초 '해양 생분해' 인증 취득
고수익·고부가 가치 친환경 소재
산업·가정·토양·해양 인증 획득

CJ제일제당이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PHA(Polyhydroxyl alkanoate)'를 앞세워 고수익·고부가 가치 글로벌 친환경 소재 시장 선점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공신력있는 친환경 인증인 'TUV 생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인증은 소재가 생분해되는 환경에 따라 분류되는데, CJ제일제당의 PHA는 산업·가정·토양·해양의 네 가지 인증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해양 생분해' 인증은 국내 최초이자, 글로벌 기준으로도 극소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HA'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PHA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CJ제일제당

데 매우 중요한 소재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과 해양을

비롯한 거의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가 특정

한 공정을 거쳐야만 분해(산업 생분해)되는 반면, PHA는 바다에서도 100% 생분해되는 세계 유일의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다. 현재 100%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생산기술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극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

'TUV 생분해 인증'은 유럽 최고 권위의 친환경 인증기관인 TUV 오스트리아에서 발급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국제 ISO표준과 EU 표준에 의거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CJ PHA는 미생물 발효 기반의 친환경 생산과정을 비롯해, 토양과 바다 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90% 이상 분해된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선진국 중심의 생분해 소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PHA는 바다에서 분해되는 유일한 생분해 소재이며, CJ제

일제당은 독보적 PHA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사업은 지난해 연간 1조 원, 향후 5년내 3배 이상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성장성이 매우 높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 PHA를 시작으로 화이트바이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 공장내 PHA 전용 생산라인 신설에 나서는 한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럽 등 수위의 글로벌 기업들이 당초 양산 계획을 뛰어 넘는 5000톤 이상의 선주문을 해온 상황"이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을 무기로 글로벌 생분해 소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oo.co.kr

“집에서 즐기는 호텔 요리” 워커힐 투고서비스

하루 전 예약 필수... 퀵배송·픽업
각 레스토랑 시그니처 메뉴 포장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 워커힐)는 각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나 프리미엄 신메뉴를 포장해 가는 투고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워커힐 정통 일식당 '모에기'는 알찬 구성의 도시락을 신규 투고 메뉴로 내놓았다. 테이크아웃 전용 도시락인 '미야비 벤또'에 미소양념의 샐러드, 소고기 스키야끼 등과 함께 매실 장아찌가 올려진 흰 밥과 장국, 그리고 과일 후식이 포함됐다. 가격은 개당 10만원이며 최소 주문 수량은 4개부터다. 하루 전날 예약이 필수이며 퀵 배송 또는 방문 픽업으로 주문 가능하다.

워커힐의 로비 라운지 '더파빌론'에선 딸기 뷔페 인기 메뉴를 선별해 '스위티 투고' 테이크아웃 세트를 선보인



다양한 생딸기 디저트로 이뤄진 더파빌론의 '스위티 투고' 메뉴.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다. 과일 타르트, 딸기 초콜릿 듀오 등 생딸기 메뉴를 메인으로, 헤이즐넛 로열 초콜릿 크림, 바닐라 슈, 망고와 블루베리 마카롱, 수제 '빈두바 초콜릿'이 선정됐다. 음료는 커피나 차, 스페인산 스파클링 와인(375ml)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6만6000원이다.

워커힐 이탈리아 레스토랑 '델비노'는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수프와 샐러드, 파스타 구성의 투고 메뉴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금룡'에서는 고급 보양식 메뉴인 '불도장'을, '명월관'에서는 갈비탕 및 된장찌개 단품, 전 육류 메뉴를 포장할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반려견과 호캉스 즐기세요”

‘댕댕 치휴 트립’ 내달 선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반려견과 견주가 동시에 호캉스를 즐기는 ‘댕댕 치휴 트립’ 패키지를 오는 3월부터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반려견 인구 증가에 따라 견주와 반려견이 각자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견 전문 헬스케어 센터 브이케어와 협업해 견주가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반려견은 브이케어 시설 내 호텔·스파 등을 이용한다.

패키지 이용객은 투숙기간 브이케어 센터 내 반려견 전용 호텔의 호텔링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15kg 미만 반려견이라면 투숙 가능하며 발톱 관리, 반려견 건강 진단 컨설팅, 문제행동 교정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동 중 쌓인 긴장감을 풀도록 ‘반려

견 스파 서비스’도 제공한다. 브이케어에서 ‘반려견 그루밍 서비스’ 구매 시 제공되며, 그루밍 상품에 따라 탄산스파나 아로마 스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려견이 낯선 장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반려견 택시 20%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반려견 전문 택시업체 동반에서 운영하는 택시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부산역, 브이케어 부산 센터점 간 왕복 픽업 및 샌딩 서비스이다. 체크인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외에도 반려견 전용 어머니티와 사료·영양제 키트를 증정한다. 건강식 6종과 대표 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제, 덴탈검 등으로 구성됐다.

장난감, 반려견 동반 여행지도도 포함돼 있다. 댕댕 치휴 트립 패키지 가격은 프리미엄 디럭스 룸 1박 성인 2인 기준 28만원부터다. /원은미 기자

‘나뭇루 시그니처’, 디저트 카페로 재탄생

마곡나루역 인근 개점

롯데제과 나뭇루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디저트숍 ‘나뭇루 시그니처’로 전면 리뉴얼했다.

16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나뭇루 시그니처’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크로플, 아포가토 등 다양한 형태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다. 나뭇루 시그니처 1호점은 이달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개점했다. 내달 중으로 경북 포항에 2호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나뭇루 시그니처는 포화상태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시장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카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젊고 감각적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변신을 꾀했다.

‘나뭇루 시그니처’는 아이스크림의 컵 사이즈 종류를 8종에서 4종으로 줄여 단순화하는 한편 디저트와 커피, 홈카페 키트 등의 카테고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나뭇루 시그니처’는 기존 로고의 폰트를 그대로 살리되 구름 모양의 디자인을 없애는 등 보다 간결한 디자인으로 바꿨으며 외관의 디자인도 나뭇루를 상징하는 주요 색상인 녹색을 보다 과감하게 강조하고 골드 사인을 적용하여 세련미를 살렸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원목 마감재를 사용하여 자연의 느낌을 살리고 곳곳에 따뜻한 자연 빛 조명을 적용하여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조효정 기자

도미노피자

페이코인 결제시 ‘반값’

도미노피자가 ‘페이코인(Paycoin)’과 제휴를 맺고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다.

도미노피자는 17일 페이코인으로 결제 시 모든 피자를 배달 50% 할인한다. 오는 28일까지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배달 30%, 포장 40%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단, 피자 한판 이상 주문 시 할인 가능하며, 여타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한편, 도미노피자는 외식업계 최초로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미노피자의 간편주문서비스인 ‘퀵 오더’를 이용하면 두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 가능하다. /조효정 기자

“머리에 툭툭”... 편의성 높은 ‘목시딜액5%’

한미약품 탈모치료제 리뉴얼 출시

한미약품이 머리에 툭툭 두드려도포하는 남성형 탈모치료제 ‘목시딜액5% (사진)’을 리뉴얼해 출시했다. 목시딜액5%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탈모치료 용도로 승인한 미녹시딜 성분의 제품으로,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이다.

한미약품은 기존 목시딜액5%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이번 리뉴얼 제품에 반영했다. 우선 기존 분사형(스프레이 방식) 제품을 탈모 부위에 직접 툭툭 두드리며 도포하는 형태로 패키지 자체를 변경했다. 기존 제품을 분사할 때 약효 성분을 탈모 부위에 정확히 도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의 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패키지 교체로 점도가 높은 미녹시딜 성분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스프레이 분사가 간편적으로 막히거나, 이로 인해 내용물이 패키지 외부로 흘러내리는 현상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내용물을 남김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도 기존 60mL에서 30mL로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최대 70%까지 낮췄다. 또 리뉴얼 제품에는 멘톨 성분을 추가해 사용시 보다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